

HDC현산 “미래 선진기술 도입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AI 등 디지털 전환 활용 안전·품질 관리 기술 현장 적용 화정 아이파크 소음·분진 등 최소공법...해체 5개월 단축 정경구 대표 중심 조직 개편 친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확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미래 선진 건설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특히 인공지능(AI) 중심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을 도입해 안전·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단지 내 서비스도 AI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조직 신설·개편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6일 현산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 개편을 단행해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정경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기존 건설본부로 건축본부로 개편하고, 인프라본부와 기술팀을 신설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내 기술안전팀과 품질팀을 새롭게 편성해 건설 본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도 마무리했다. 현산은 또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가시성, 콘크리트 품질 등 건설·안전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시공혁신단’을 운영하고 있다. 독립적 의사 결정 조직인 시공혁신단은 안전·품질 역량 향상을 목표로 기관·학회와의 교류, 설계 안전성 검토 강화,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점검·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음·분진 최소화·화정 아이파크 해체 기간 단축=현산은 경쟁력 확보와 함께 여러 공법을 통해

새로운 기술력도 선보이고 있다.

현산은 2022년 붕괴 사고 이후 해체를 완료한 광주 서구 화정동 센테니얼 아이파크 해체 현장에서 소음·분진 등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이아몬드 소재 절삭 도구로 잘라내는 DWS(Diamond Wire Saw) 공법을 사용했다.

또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발판과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국내 최초 외부 가시성 공법인 RCS(Rail Climbing System) 등의 고난도 기술도 적용했다. 그 결과 예상했던 기간(22개월)보다 5개월여 단축한 17개월 만에 해체를 완료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새로운 이름인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를 다시 짓는 과정에서도 현산의 강화된 안전·품질 관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단지 콘크리트는 설계 강도를 27메가파스칼(MPa)에서 30MPa로 10% 상향했다. 1MPa는 1cm당 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뜻으로, 설계 강도를 올려 버틸 수 있는 하중을 더 높이고 안전성을 더 높였다는 게 현산의 설명이다.

또 현장에 30여대의 CCTV를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별 투입 인원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동해 안전 관리 사각지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된 도심지 초고층 빌딩 해체를 예정 기간 대비 5개월 앞당긴 후, 차별화된 안전·품질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 리빌딩을 진행 중이다.

대 최소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산은 이 밖에도 모든 현장에 I-QMS(IPARK-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해 품질 현장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1월 DX 기술까지 적용해 모바

일에서도 품질 점검과 현장 업무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헬퍼 로봇·전기차 화재 사전 감지 등 AI·DX 기술 활용=현산은 아이파크 내에 신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현장에서 DX(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척아이파크에는 HDC그룹의 IT 계열사인 HDC랩스가 로봇 전문 기업과 협업·개발한 헬퍼 로봇 서비스의 시범 운영이 계획돼 있다. 헬퍼 로봇은 주거동과 아이파크몰 상가를 연계해 입주민이 주문한 식재료와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와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로봇이 집 앞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가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원 아이파크에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GPT’ 기반 음성 인식 월패드가 적용된다. 또 생체 인식 기반의 스마트 단지 출입 서비스인 안면 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과 범죄 예방 건축설계를 접목한 1200만 화소의 전방위 CCTV,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파크 단지와 세대 내 설치된 시설물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파크홈 앱 등이 계획돼 있다.

현산은 또 AI를 접목한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과 현장의 전력 소비량·생산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AI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지하주차장 내 전기가 화재를 사전 감지하는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DX 기술을 활용해 선보일 예정이다.

현산 관계자는 “DX를 통한 고도화된 기술과 안전·품질 관리 시스템이 모든 현장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현산만의 독보적인 역량을 토대로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시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캄보디아 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

한감중소벤처기업교류협회 성료 인재 육성·프로그램 개발 등 협업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광주전남협회)가 지역 벤처기업의 캄보디아 사업 확장을 적극 지원한다.

광주전남협회는 “한감중소벤처기업교류협회, 광주·전남, 서울·경기 등 6개 벤처기업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한-감 기술교류회 및 기업 매칭 콘퍼런스’에 참석해 캄보디아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인구 1700만명의 ‘젊은 국가’ 캄보디아는 아세안 내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5월 훈 마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한국 기업의 중요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한 광주·전남 방문단은 인사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주테크노파크 우수 사례로 꼽히는 창업 기업 실증지원사업의 협업 등을 제안했다.

광주전남협회 방문단과 캄보디아 정부측은 또



한국기업이 캄보디아 내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숙련된 인재 육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인 ‘나야넷’과 자동차 진단·중고차 판매 플랫폼 전문 기업인 ‘위카모빌리티’ 등의 프로그램 개발 참여 등에 의견을 모았다.

광주전남협회는 이어 KOICA·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간담회에 참석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협업을 통한 캄보

디아 사업 진출 등도 집중 논의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활용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교역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감중소벤처기업교류협회를 활성화해 새로운 한국-캄보디아 중소벤처기업 발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하반기 가계대출 더 뻑뻑해진다

“지방은행엔 가산금리 완화 검토”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뻑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6일 “이달 내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 도입과 관련,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한 입장을 이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

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등의 부작용도 동반한다.

/연합뉴스

기아, 1분기 유럽서 가장 많은 전기차 팔아...판매비중 20% 돌파

분기 최다 2만7761대 판매

기아가 올해 1분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분기 기준 최다 판매를 질주했다.

6일 기아 I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아는 유럽에서 2만7761대의 전기를 팔았다. 이전 최대 판매기록이었던 2023년 3분기 2만3794대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유럽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기아는 이런 기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6위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 전기차의 선전은 콤팩트 전기 SUV ‘더 기

아 EV3’ (EV3)가 이끌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EV3는 올해 1분기 1만7878대가 팔리며 지난해 4분기(7053대) 대비 153% 급증했다. 이는 올해 1분기 기아 전기차 판매량의 64%에 해당한다. EV3는 자토 다이내믹스 조사한 유럽 내 베스트셀링 전기차 순위에서 올해 1분기 테슬라 모델 Y·모델 3, 폭스바겐 ID.4·ID.7에 이어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된 EV3는 이미 유럽에서 다양한 어워드를 휩쓸며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EV3는 지난해 1월 ‘2025 핀란드 올해의 차’에 올해 3월 ‘2025 영국 올해의 차’에 올랐다.

유럽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 전기차 판매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데 유럽자동차공업회(ACE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57만3500대로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기아는 올해 EV 4, EV5, PV5 등을 유럽에서 출시하며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EV3를 비롯해 다양한 전기차를 전 세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며 “향후 전기차 신차 출시 및 현지 생산 체제 구축해 유럽 전기차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융특강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위한 금융특강’을 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 특강은 광주은행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공동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의 지역 사회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금융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번 특강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은행 계좌 개설 절차, 합리적인 카드 사용법, 신용점수 관리 요령,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광주은행의 설명이다.

고훈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장은 “금융교육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금융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SKT “알뜰폰 포함 2411만명 유심보호서비스”

104만명 유심 교체

SK텔레콤은 6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버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알뜰폰 이용자 포함 2411만명이 가입했고 104만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대상자 대부분을 자동 가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유심 보호 서비스와 해외 로밍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아직 유심 교체를 대기하고 있는 가입자가 많아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체용 유심이 많게는 하루 100만개가 들어오거나 또는 10만~20만개씩 확보되는 등 유동성이 있지만, 물량 확보가 조금씩 여유로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측은 이번 연휴 기간 임직원 1000여명을 T월드에서 투입해 유심 교체 작업을 지원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고객은 직영-대리점 연휴 기간 중 문을 닫아 헛걸음했다는 불만 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 작업이 되지 않는 일요일의 경우 보통은 T월드의 30~40%가 문을 여는데 이번 연휴 일요일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지만 85~90%가 열었다”고 해명했다.

SKT는 지난 5일부터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직영-대리점을 중심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직영-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에서의 신규 고객 유치도 평상시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경총 근로감독·통상임금 확대 정책 교육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 정부의 근로감독·통상임금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기업별 대응책 마련을 돕는다.

6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오는 13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 구분 없이 50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근로감독과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 대응 교육

을 진행한다.

광주경총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노사간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올해 근로감독 방향과 통상임금 이슈 등을 전달하고 회원사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